

베네수엘라, 대규모 시위 발생 이후 위기감 고조

□ 차베스에 대한 대규모 시위

- 2002년 7월 11일(이하 현지시간) 베네수엘라의 수도 카라카스에서 수십만명이 참가한 반 차베스 시위가 발생하였으나 별다른 유혈충돌없이 종료되었음. 동 시위는 3개월전 발생한 유혈시위 진압과정에서의 희생자를 추모하고 차베스의 하야를 촉구하기 위한 것임.
- 시위대는 경찰의 완강한 제지로 당초 예정한 대통령궁 앞까지의 행진은 하지 못하였으나 주요 간선도로와 공항을 점거, 4월 시위발생시에 버금가는 정치·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였음. 그러나 **우려하였던 유혈사태는 양측의 자제로 발생하지 않았음.**
- 쿠데타 발생과 차베스의 복귀 이후 내연하고 있던 정치·사회적 불안이 대규모 시위로 발전한 **근본적 이유**는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후 3년간 추진한 각종 사회주의적 정책에 대해 **기득권층이 강력히 반발하고** 있는데다, **내실없는 인기위주의 대중영합적(Populism)정책에 대한 일부 서민층의 불만이 가세한 결과임.**

□ 카터의 중재노력 실패

- 한편, 대규모 시위발생에 앞서 7월 6일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차베스의 요청을 받아들여 베네수엘라 현 정부와 야당과의 중재에 착수하였음.

- 그러나 야당은 카터가 차베스에 편향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일체의 중재노력에 대해 거부 의사를 나타내고, 7월 11일로 예정된 대규모 시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것임을 밝힌 바 있음.
- 카터 방문의 유일한 성과라고 하면 차베스와 야당간에 미주기구(OAS)에 의한 중재가능성을 열어놓는 것이라 할 수 있음. 차베스 및 차베스 지지자들은 4월 쿠데타 발생 이후 미주기구 및 미주기구의장인 세자르 가비리아에 대해 극도의 거부감을 표시해 왔음.

□ 예정된 3차 총파업으로 급격한 정국불안 야기 가능성 높아

- 7월 11일 대규모 반정부 시위 종료에도 불구하고 야권은 4월 시위에서 차베스의 발포 책임과 석유안정기금(FIEM) 유용 등 각종 부패 혐의로 차베스의 합법적 퇴진운동을 지속할 방침임.
- 더욱이 베네수엘라 노조연맹(CVT)과 상공인 연합회(FEDECAMARA)가 정부의 경제실책을 이유로 2001년 12월과 금년 4월에 이어 7월 중 3번째의 대규모 파업을 예정하고 있어 정국불안이 고조되고 있음. 특히 금년 4월의 총파업은 유혈시위 및 군부쿠데타로 발전한 바 있어 그 파급효과는 상당할 것으로 전망됨.
- 이러한 정국불안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여야간의 적극적 대화가 필요하나 차베스는 최근의 지지율 급락으로, 야권은 지도자 부재로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치·사회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음.

문의 : 국별조사실 배상욱 차장 subae@koreaexim.go.kr
 최성규 행원 ppio93@koreaexim.go.kr